

20년 한기결같은 믿음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롯데제과 평택공장 조경은 보건관리자

롯데제과 평택공장 조경은 보건관리자는 220여 명의 노동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벅찰 만도 하지만 평택공장을 누비는 발걸음은 언제나 한결같다. 긴 세월을 지치지 않게, 또 앞으로 계속하게 할 원동력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환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 덕분이다.



신임 보건관리자가 불러온 '건강' 바람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다 롯데제과 평택공장의 보건관리자로 입사한 지 20년. 당시 조경은 보건관리자는 총무 파트 소속으로 보건관리 외의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닌 업무를 하는 것이 수월한 편은 아니었지만, 더욱 힘들었던 점은 보건관리 업무 그 자체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넓고, 그 내용도 다양한데 공장 내 보건관리자의 업무 매뉴얼 및 지침 가이드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이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큰 공장을 혼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심적 부담도 컸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보건관리자로서 제 몫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발로 뛴 수밖에 없었다. 각 제품의 생산 라인과 포장 라인 등 라인별 노동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유해환경 요소는 무엇인지 살피나갔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파악됐고 이내 실행으로 옮겨졌다. 오래 서서 일하는 데 오는 노동자들의 발바닥 통증은 피로방지 매트 및 깔창으로 개선했으며, 작업 전후 스트레칭 교육으로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자 했다. 화학물질 관리 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작업장의 유해 작업환경 관리도 조경은 보건관리자의 역할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경은 보건관리자의 노력과 열정은 평택공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 1 롯데제과 평택공장 안전 파트는 안전·보건·소방 업무로 분화돼 있다.
- 2 공장 내 응급환자 처치도 조경은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보호구 착용은 잘 하고 계시죠?”, “지난번 건강검진 시 혈당이 높았는데, 혈당 관리 잘하고 계시죠?”,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게 조경은 보건관리자가 평택공장 노동자들에게 건네는 안부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관심에 어색해하던 노동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조경은 보건관리자와 함께 건강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조경은 보건관리자가 매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또한 건강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봤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감량한 킬로그램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차등을 뒀서 지급했고, 마한가지로 금연에 성공할 시 개월 수에 따라 건강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도 했어요.”

조경은 보건관리자가 매년 건강증진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까닭은 평택공장 근무형태가 주야교대근무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교대근무는 그 특성상 생체리듬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고혈압·당뇨고지혈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복지로 종합검진 비용이 매년 지원되고 있지만, 평상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조경은 보건관리자가 건강증진 활동에 매진하고 노동자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건넬 수밖에 없는 이유다.

- ❶ 노동자들은 보건관리실에 편하게 들려 조경은 보건관리자와 건강 이야기를 나눈다.
- ❷ 조경은 보건관리자는 노동자들에게 밀폐마스크 등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을 알려준다.
- ❸ 공장 내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안전 파트 내 유대감은 유독 돈독하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환자'가 되지 않도록

롯데제과는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공장별로 안전 파트를 두고 있다. 파트 내 안전·보건·소방 업무가 분화돼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각각의 부문별 테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2월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3월에는 '소화기 방사 훈련' 등이 진행되는 것. 각각의 업무와 역할은 다르지만 공장 내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서로의 유대감은 돈독하다.

“모두들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저희의 당부나 조언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를 믿고 따라준다면 모두가 원하는 바램이 실현될 것입니다.”

조경은 보건관리자는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한결같은 도움을 주고 싶단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건강검진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고서뿐만 아니라 뇌심혈관계 발병 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단다.

“저 혼자 일하는 데 오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평택공장 노동자들에게 최상의 보건관리자 조경은이 되고 싶습니다.” 🐦

